다시 관선 구청장?…속셈 뭐냐?

정부,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추진

지자체·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훼손" 강력반발

정부가 전국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특별·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구의회 폐지, 구청장 관선 임명' 등을 주내용으로 확정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과정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특히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를 의미한다"며 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또,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역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개적 토론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광운 북구청장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구청장은 민선으로 하고 지방은 임명제로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권용일 광주 구의장단 협의회 회장은 "17일 전국 15개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서울에서 모여 '개편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구의원을 없애면 시의원을 늘리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발표를 하는 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의 당사자 격인 광역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등이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자치적 발상"이라며 "이런 형태를 '준자치제'라고 미화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자치구가 폐지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 배분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며, 풀뿌리 생활정치는 불가능해지고,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이 임명제로 바뀌면 자치권이 박탈된 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기능만 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 구민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편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자치구 제도가 종합행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며 비효율적인 구의회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치구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구청장(44명)과 군수(5명)를 임명제로 바꾸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특·광역시 구·군의회(74곳)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구청장 임명 주체 누구냐" 논란

개편안에 언급 없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서 구청장 임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가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임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체제개편안 의결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임명제로 한다'고만 언급이 됐을 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지 또는 지방정부가 임명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다만 "시청과 구청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명의 주체는 지방정부, 즉 시장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과소자치구 통폐합 대상과 관련해선 "광주지역 5개 구는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안철수, 민주 후보와 단일화 나설 것"

안원장과 물밑 소통 김효석 의원 인터뷰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돼 왔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설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8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안 원장의 대권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안철수 원장과 그동안 물밑 소통을 해왔던 김효석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짚어봤다.

대선 출마 검토할 시점
일단 정치권 밖에서 활동

안원장 들어올 수 있게
민주당 스펙트럼 넓혀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다. 일단 안 원장이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과의 소통에 나서면서 정국을 주시할 것으로 본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있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입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정치권 밖에서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의 대선 도전 선언 시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 안 원장이 대권 도전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후, 민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2의 고건'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 않다. 고 건 전 총리와는 다르다.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 그 같은 기대 섞인 희망을 할 것이다.

-최근에 안 원장과 만난 적이 있는지.

▲총선 이전에는 자주 소통했으나 총선을 치르느라 만나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있는 만큼 안 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총선 패배 이후,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원장을 두고 한 말인가.

▲민주통합당이 너무 진보적 가치에 치우쳐 중원을 잃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 놓아야 안 원장 같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진보성향의 유권자와 반 MB 세력을 중심으로 하되 민생 등 다양한 가치와 노선을 수용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관심 대이동

"호남 홀대 맞서 한목소리 내겠다"

민주 광주·전남 당선 10명 기자간담회

다음달 4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의 호남 홀대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향후 당 운영과 지도부 선출, 지역현안과 관련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박지원·이낙연·우윤근·이윤석·주승용·김성곤·김영록·김승남·배기운·황주홍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은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 2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와 희생론에 대해 우려와 공감을 표했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의 경우)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홀대받고 소외당했다. 모바일 경선만 해도 우리는 경선을 치렀지만, 영남·수도권의 경우 경선 없이 치러진 곳도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고생은 다하면서 소외를 당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뜻을 한데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음달 4일 열릴 원내대표 경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당내에서 한데 뭉쳐 한목소리를 내보자는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며 "19일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가 열리는데, 모바일 경선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참배 민주통합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정신 계승, 대선 승리, 정권교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추모탑으로 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